

올 여름 '간경 수행' 돌풍

리얼리티 수행일기 <F>



한복룡

총남대 법대교수

대학시절 춘원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를 몇 번이나 읽었다. 삼국 통일에 있어서 김춘추, 김유신의 역할이 지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원효대사의 활약과 사상이 그 정신적 뒷받침이 되고 더 나아가 세 나라 국민의 화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후 나는 원효스님을 우리 역사의 정신적 최고지

중주, 지약산 종주 등 성지순례는 나의 불심의 세계를 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산과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 이후 백 두대간을 종주하게 되는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이어진 계룡산과의 또다른 인연은 내게 또다른 의미로 자리잡았다. 1984년 총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심우정사에 주석하신 목초스님과 만남을 계기로 계룡산은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요, 수행의 장이 되었던 것 같다. 매주 한 번 이상 계룡산의 자연과 만월(滿月) 그리고 목초스님의 법담과 더불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학생, 동료교수들과의 만남의 장소로도 확대되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동기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정월, 민족의 영산, 계룡산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것도 참으로 뜻있는 일이었다.

성지순례 불심깊게 하는데 도움

참선공부 시작, 인생 최고의 도전

도자로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젊은 대학시절이었기 때문에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을 황태자의 첫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러브 스토리라 생각하고 그 점에 매료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육군 제3사관학교 교관시절에 만난 몇 분의 법사님과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불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세무대학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시절에 만난 정무스님, 세무대학 1기생인 황신권 회장 등의 도움이 컸다.

당시 유주사 주지였던 정무스님께서는 지도법사로서 체계적으로 우리들을 불교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 그 이후 총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여주 신목사, 이천 영월암으로 그리고 현재의 안성 석남사에 이르기까지 약 22년여에 걸쳐 만남과 배움을 이어오고 있다. 정무스님과의 설악산 봉정암 성지순례, 지리산

계룡산 인연담의 결정판은 장군봉 아래 위치한 학림사 오등선원의 조실 대원스님과의 만남이다. 융성-고암-대원스님으로 이어져온 선택을 자랑하는 이곳 명당에서 참선공부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중도가> <대주선사 이룩> 등을 대원스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기회를 가진 것, 함께 시민선원 운영을 맡으면서 참선공부를 하는 훌륭한 여러 도반님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여러 스님들과 더불어 사부대중이 함께 참선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하다.

위의 인류문명을 구제할 수 있는 사상은 분명 이 선사상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날 참나를 찾아 구도의 여행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오등시민선원은 구도자들의 선불장(選佛場)임에 틀림없다.

지난 12월 조계종 9교구 본사인 동화사(주지 지성스님) 통일대불전은 스님과 불자들이 발디딜 틈이 없었다. 아홉 번째 접어들어 화엄논강 '화엄경의 성불론' 주제의 법회현장에는 그동안의 치열한 논쟁 분위기를 반영하듯 150여 스님과 250여 재가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기를 뽐냈다. 염불 참선과 함께 3대 방편문의 해-인간경(看經) 수행이 세간의 화제가 된 실상사 금강경 결제에 이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사교입선(敎入禪)'을 오택한 풍토가 없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현신(現身)이나 다름없는 경전을 외면하고 어떻게 도에 이를 수 있을까.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애독했고, 5조 홍인 스님은 <능가경>과 <금강반야장>을 소의로 해서 종풍을 떨쳤으며, 6조 혜능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란 경문을 보고 깨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교쌍수(禪敎雙修)의 새로운 수행방편으로 각광받고 있는 간경 공부(看經)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사찰과 수행단체를 소개한다.

○...대구 동화사는 <화엄경>을 체계적으로 분석, 조명, 토론하는 '화엄경 논강'을 올 한해가 시작된 지난 5월 17일부터 결제가 끝나는 8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열고 있다. (053)982-010

○...서울불교전문강당은 7월 31일부터 2학기 경전강의를 시작한다. 각성스님(부산 호림사 승가대학 강주)이 <금강경> <능엄경>을, 덕민스님(범어사 승가대학 강주)이 <원각경>을, 통광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강주)이 <대승기신론>을 각각 강의한다. (02)732-4923

○...송광사 서울분원 법림사(주지 보경스님)는 백중 49일 영가전도 기도회향에 맞춰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초청, 8월 6~12일(매일 오전 11시~12시30분) 7일간 <법화경> 대산법을 연다. (02)733-5322

○...서울 삼보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30분 정기법회에서 경전을 강의한다. 첫째 주는 <법구장>(박경준 통국대 교수), 둘째 주는 <화엄경 십지품>(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셋째 주는 <달마대사 이입사행론>(송



△하안거 결제기간동안 동화사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화엄경 논강'에는 연일 출·제가 학인들의 공부열기로 뜨겁다.

'화엄경 논강' 등 연일 만원

'선교쌍수' 수행풍도 정착

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넷째 주 <사십이장경>(정병조 통국대 교수). (02)943-2858

○...대한불교보림회(회장 성상현 법사는)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8시30분 <금강경>,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5분~3시15분 <능엄경>,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30분 <법화경> 강의를 진행한다. <아함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 7부(寶) 경전을 모두 외워서 해석하는 성상현 법사가 직접 강의한다. (02)739-1044

○...서울 한국선문화연구원(원장 성본스님)은 지난 달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육조단경 강의를 하고 있다. 성본스님이 <돈황본 육조단경>(성본 스님 역주, 한국선문화연구원 펴냄)을 교재로 중국 선종사 전반에 대한 강의를 병행한다. (02)765-6539

○...'부산 무심선원 원장 김태완 교수(부산 대 철학)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심법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선으로 읽는 금강경' 법회를 연다. 무심선원은 체험을 녹인 선어록 강의로 법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51)515-7226

○...서울 보명선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4~6시 경전강의를 한다. 첫째 주는 <안야심경>(김용정 박사), 둘째 주 <원인론>(각성스님), 넷째 주 유식강의(각성스님) 등의 순이다. (02)2273-8484

○...서울 강남포교원 원장 성열스님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선으로 푸는 금강경'을 강의한다. (02)539-2631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마음을 닦는 방편'으로 <금강경>을 하루 7독송을 하며 정진한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0분 정진방식으로 5독송을 하며,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2독송을 한다. (02)742-017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무비스님

△종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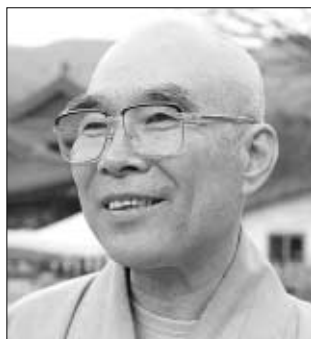
△각성스님

△성본스님

△성상현 법사

△김태완 원장

각화사 태백선원



△선원장 고우스님

15개월간 해제없이 가행정진

수면 3시간, 매일 15시간 수행

하루 수면시간은 3시간. 새벽 1시에 일어나 매일 15시간씩 수행. 그리고 15개월간의 가행정진(加行精進)...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용맹정진을 하고 있는 경북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 이곳에서 12년간 수좌를 지도하고 있는 선원장 고우스님은 "처음 29명이 방부를 들여 3명이 병으로

중도 탈락했지만, 이제는 무난하게 가행정진이 진행중이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수행인만큼 모두들 환희심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납자들에게 반드시 한철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열원을 갖게 하는 수행도량인 태백선원. 일반 선원의 용맹정진 기간이 보통 7~15일인 것을 감안 할 때, 그 정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태백선원의 가행정진 가풍이 시작된 것은 7년전. 대공공사를 거쳐 3개월간의 안거를 가행정진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1년단위로 해제철도 없이 정진하기로 한 것. 이번에는 동안거가 겹쳐 석달 늘인 15개월로 정했으며, 이후부터는 1~2달간의 해제기간을 가진 후 1년단위로 정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풍은 수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엄격한 선원규규, 선원장 고우스님의 정성어린 지도가 삼박자를 이루면서 자리잡은 것.

고우스님은 그러나 "화두만 붙들고 생활과는 무관하게 무자정 앉아 있는 것이 선의 본질은 아니다"고 말한다. "일상생활과 부딪혀 그것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재경 기자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정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정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질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